

철학사

38 스피노자(계속), 라이프니츠 아서 홈즈 박사 (휘튼 대학교)

좋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난 금요일에 스피노자의 이성과 감정에 관해 말씀드리려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여러분 이 스피노자 사상의 주요 윤곽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니,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살펴볼 스피노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이성과 감정에 관해서,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네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요일에 올렸던 개요와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줄였습니다. 아마 이게 전부일 겁니다. 기억으로는 스피노자의 결정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이성과 감정에 대한 관점 모두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감정 정의를 살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원하시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은 선집 134번째에 있습니다. 감정이란 신체의 활성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강조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감정은 신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감정은 신체의 변화입니다. 변화는 일시적인 신체 상태의 변화입니다.

유한한 양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은 신체적 존재의 일시적인 양상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신체의 능동적인 힘과 관련이 있으며, 그 힘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의 힘이요? 네, 맞습니다. 한 신체 상태가 다른 신체 상태로 이어지는 인과적 에너지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힘이 증가하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낙담하면 힘이 감소합니다.

감정이란 신체 활동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따라서 감정은 신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적 변화에 수반되는, 즉 우리 존재의 또 다른 측면이 바로 그 병행 현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생각과

신체적 확장이 존재의 두 가지 속성이라면, 신체적 감정에 상응하는, 우리가 느끼는 변화하는 의식 상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식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열정이라고 부르곤 하는데, 이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수동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적인 변화, 즉 신체의 활동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의식 상태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그는 이 맥락에서 의지와 지성이 의식적인 과정의 측면에 관여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것이고, 지난번 토론에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 즉 의지, 욕망, 갈망과 관련된 추진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했었죠. 심리학 용어로 말하자면, 이러한 의지적 기능들을 '도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감정은 바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이죠.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삶에서, 원함과 의지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 상태, 즉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등을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정의는 상당히 명확합니다.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감정이 우리를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마도 그의 대표작인 『윤리학』의 마지막 두 부분이 각각 '인간의 속박'과 '인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루터나 그와 비슷한 사상가들의 사상이 떠오르는 듯하지만, '인간의 속박'이라는 제목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의식 속에 불충분한 관념, 즉 사고의 명확성과 결여가 있을 때, 혼란스러운 관념이 감정과 뒤섞이게 되고, 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명확성과 결여가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얽매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즉 인간의 자유는 명확하고 분명한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명료한 사고는 우리를 움직이는 감정적 충동을 잠재우고, 명료한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의 윤리학 발전 과정에서 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이는 145쪽, 148쪽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성이란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지배되는 삶, 즉 감정에 대한 이성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덕이란 악에 대한 두려움, 즉 감정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앞으로 행할 일의 결과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삶이란

우리 의 상황을 결정하는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는 물리적, 감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에서 작용하는 인과관계까지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실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연의 인과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것을 반박할 수 없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감정적 동요로부터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연 법칙에 대한 수용에서 마음의 평화가 탄생하는 것이죠. 스토아 철학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미래의 어떤 보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덕은 그 자체로 보상입니다.

이제 그는 이성적인 수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질서에 대한 지적인 수용은 신이나 자연, 둘 중 하나에 대한 지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정연한 장엄함을 사랑하는 것은 곧 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최고의 덕성은 바로 지적인 신 사랑, 즉 자연의 질서와 작용하는 모든 자연의 힘을 관조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신을 그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히 스피노자의 유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는 거기서부터 그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유신론자가 아니라 범신론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 항목이 필연적으로 도출됩니다. 즉, 신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나 미움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시며, 모든 명확한 생각의 총체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십니다 .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 만약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고 방식, 즉 우리의 관념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신다면, 그분은 유한한 방식, 즉 우리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아야 할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작용이란 없습니다. 신이 우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 안에 계신데 어떻게 신으로부터 상호 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요약한 스피노자의 이성과 감정에 대한 견해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피노자에 대한 우리의 사고 단계에서 이미 예측 가능한 내용이었습니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의지 개념과 그것이 이 맥락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은, 그가 꼭 그렇게 믿는 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는 의지를 어떻게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이 헛갈려요. 음, 만약 의지라는 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의식을 의미한다면, 의지는 또 다른 개념일 뿐이에요. 선호하는 의식, 긍정하는 의식, 또는 부정하는 의식인 거죠.

그것은 또 다른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관념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선행하는 관념들의 흐름 속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의지 행위는 의식 상태이며, 종종 자유로운 것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인과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 사랑의 예시들을 통해 때때로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가 어디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는 자기 부인적인 사랑은 하나님이라는 전체성에 대한 지적인 사랑의 한 측면일 뿐이며, 이는 자신의 쾌락이나 욕망, 또는 다른 감정적인 상태에 대한 사랑을 초월한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 아니, 제가 그의 사랑이라고 말했나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말했어야 했던 것,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일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존재의 일부이며, 따라서 우리가 속한 전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하지만 그런 집중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도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즉, 이 부분이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말인가요? 그의 윤리학을 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자연의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네, 그의 사고방식을 관통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148페이지쯤일 거예요. 그는 결과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하죠. 정확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 보자. 지금은 잘 안 들리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봐, 데이비드. 그때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겠지만, 해당 구절을 다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그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제 말은, 만약 그분이 우리의 증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면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우리는 생각이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명료한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에, 생각의 대상인 자신에 대한 사랑이 부족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미워해도 그분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말인가요? 미움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미워한다 해도 그분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건가요?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궁금하네요. 잠깐만요, 만약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네, 그는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총합 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알겠나? 인간은 자연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이제, 의식적인 사랑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연의 총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에 대한 수용 속에 사랑과 같은 것이 존재하며, 따라서 그 사랑은 당신의 작은 증오를 초월합니다. 물론,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이지만, 제 생각에 그분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모든 측면에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다른 측면들은 의식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웨일즈 왕자처럼 꽃이나 식물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물의 지적인 측면이 존재하며, 그것이 항상 의식 속에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해 가능한 질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가능한 질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되지요? 우리가 보는 것은 다양한 존재들 속에 존재하는 의식의 정도입니다. 완전한 자기 의식을 가진 신에서부터, 우리에게도 명확하고 뚜렷한 의식의 순간순간이나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물론 우리의 의식이 모두 명확하고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요. 동물들의 의식은 더 혼란스럽고, 식물처럼 의식은 없지만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이해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적인 질서가 존재합니다. 신이라고 알려진 의식 있는 존재가 실제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네, 신은 의식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이 완전한 명료함과 명확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의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해의 위계 전체에서 신은 가장 명확하고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는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저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 주로 그의 인도자에 대한 끊임없고 영원한 사랑, 즉 유일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죠? 158쪽, 오른쪽 아래 열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는 구원, 복락, 자유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고 영원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둘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둘이 동일한 것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어디쯤에 있는지 158쪽이 나옵니다. 어디 보자.

네. 바로 위에 지적하신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고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가지시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반응하여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랑, 또는 축복을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향하든, 마음에 향하든, 영의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용하고 순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영광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즉, 구원,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관상적인 사랑을 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속한 우주의 질서 전체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속한 그 우주의 질서, 곧 하나님 자신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개인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스피노자는 바로 그런 관점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인적인 의미, 즉 개별적인 의미의 구원이나 내세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스피노자의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 경전일지는 몰라도 스피노자는 아니에요. 알겠죠? 좋아요.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할게요.

알았지? 간단하게 마무리하자. 아직은 아니야. 응, 케일? 응.

20세기적 관점에서 그는 유대교의 신화적 요소를 탈피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합리주의적 범신론적 관점에서 유대교를 재해석하려는 것입니다. 즉, 그가 생각하는 유대교 신앙의 본질을 그 신앙이 탄생한 서사적 맥락에서 분리해내려는 것입니다.

야훼가 특별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존재라는 개념 등을 포함해서 말이죠. 그게 바로 유대교의 본질이 전달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개혁 유대교와 정통 유대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혁 유대교는 어떤 면에서는... 아, 유니테리언교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개인적인 관계 보다는 인류와 자연 전체에 대한 특정한 이상을 강조합니다. 정의와 사랑에 관심을 갖는 도덕적 신 에게로.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종교가 신의 본질에 대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까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말할까요? 글썄요, 그가 그렇게 말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는

모든 종교가 그가 설명한 것처럼 모든 것을 포괄하는 유일신에 대한 혼란스러운 이해일 뿐이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워한다고 말할 것 같고요. 뭐,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말하겠지만요.

하지만 그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그의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첫째, 소크라테스식 내면의 변증법과 같은 숙고를 통해 아이디어를 인지적으로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 사고를 혼란스럽게 하고 산만하게 하는 감정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되고 산만하지 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스피노자뿐만 아니라 그의 선배인 데카르트에게서도 배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더 명확하고 뚜렷한 관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산만하지 않은 마음의 집중 이나 그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감정 이론과 연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기준을 얻게 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면,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되는 걸까요? 이해 되시죠? 제가 그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의 정신적 방향을 포함하여 자연 전체에 흐르는 만연한 충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마치 쥐를 물고 놓지 않는 고양이처럼 될 겁니다 .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 아닌가요? 우리는 스피노자를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명확히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마치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타고난 충동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선택했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사실은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뿐이야. 알겠어.

좋습니다. 자, 스피노자를 떠나면서 이런 종류의 의제를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게시판 부분에는 스피노자의 주요 사상 세 가지, 즉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과 다수의 관계' , '심신의 문제',

그리고 '자유와 결정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를 간략하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들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입니다. 데카르트의 경우,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이 있습니다. 유신론적 맥락 안에서의 이원론이므로, 이를 유신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카르트에서 이원론이라고 할 때는 질적인 이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적 실체와 물리적 실체 사이에는 질적인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사고하는 것과 확장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질적 관점과 양적 관점을 구분하세요.

정신은 몇 개나 있을까요? 육체는 몇 개나 있을까요? 물론 정신과 육체는 하나씩밖에 없지만, 모두 합쳐보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양적인 측면입니다. 데카르트에게 중요한 점은 그가 양적인 이원론자가 아니라 질적인 이원론자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죠. 질적 이원론자입니다. 우리는 스피노자를 유일론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는 질적 일원론자입니다. 아니, 취소할게요. 그는 양적 일원론자입니다.

양적 일원론자. 수치적으로 보면 실체는 하나, 존재는 하나뿐이다.

보시다시피, 질적인 측면이란 게 뭘까요? 하나의 존재에 대한 질적인 측면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양적인 일원론자이면서 질적인 이원론자입니다.

다원주의. 라이프니츠는 반대로 다원주의자이다. 실체는 몇 개나 있는가? 아주 많다.

그는 양적 다원주의자입니다. 무한대. 양적 다원주의자.

하지만 그는 질적 다원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서로 다른 물질들은 정도의 차이로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로 말이죠.

그가 하고 있는 것은 중세 시대의 존재의 위계 개념, 즉 존재의 유추를 다시 도입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유사한 속성을 지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라이프니츠의 양적 다원성 안에는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차이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신에 관해서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당연히 인과관계를, 스피노자는 이중성을, 라이프니츠는 평행성을 이야기했죠.

네,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몸은 매우 복잡한 물질이고, 마음은 단순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는 없습니다. 인과 관계는 전혀 없어요. 그저 서로 보조를 맞춰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말하자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서로 완벽하게 박자를 맞춘다. 관념은 신체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미리 정해지고, 미리 짜여진 듯하다. 이것이 라이프니츠의 경우에서 말하는 병행성이다.

자유와 결정론에 관해서 말하자면, 데카르트는 의지의 자유에 대해 비결정론자입니다. 의지는 긍정하거나 부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 해야 하는 겁니다, 절제 해야만 해요. 스피노자는 내적 인과 과정 때문에 결정론자입니다. 내적 결정론이죠.

라이프니츠는 또 다르군요. 그는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봅니다. 양립 가능하다고요.

그는 자유를 기계적인 원인으로부터의 자유, 즉 기계론적인 자유가 아니라, 목표와 목적을 추구하고 내면의 엔텔레키를 실현할 자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콜라주의처럼 들리나요? 맞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이러한 생각은 그가 기계론적 과학을 궁극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충분히 궁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이로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기계론적 과학은 모든 것이 물질과 운동의 관점에서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분해되고 운동이 멈추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그의 대답은? 물질은 없고, 에너지, 즉 힘! 힘입니다.

다시 말해, 라이프니츠는 1700년경에 에너지 물리학을 구상하고 있었다 . 모든 것이 목적 지향적이며 내적 엔텔레키가 존재하는 목적론적 형이상학 속의 에너지 물리학 말이다.

목적론 은 바로 그 본성이 발휘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초기 설명은 라이프니츠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음, 어디 보자. 네,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1700년경에 살았던 라이프니츠는 과학과 종교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홉스와 스피노자 같은 사람들에게서 과학과 종교 사이의 갈등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

그 개개인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기계론적 과학은 기독교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간의 자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관한 문제들. 그러므로 내세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신의 본질과 신이 자연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자연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인 현실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철학으로 받아들여지는 기계론적 과학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는 기계론적 과학을 궁극적인 현실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계론적 과학에 대해서는 반실재론자이지만, 자신이 구상하는 과학에 대해서는 실재론자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 라이프니츠는 직업적으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일 외교관이었으며, 끊임없이 외교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길 위에 있었다. 그래서 스피노자처럼 체계적인 논문을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선집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짧은 작품들을 썼다.

그는 당시 유럽 전역에서 벌어지던 종교 전쟁에 대해 우려했고, 통일된 유럽과 통일된 기독교 세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협상에 참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그가 호소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철학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는 단지 대립하는 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기계론적 과학으로는 그가 구상하는

유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목적, 즉 어떤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라이프니츠에 이르러서는 기계론적 체계에 대한 의문 제기 와 인간의 정신과 자유에 더욱 효과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체계의 구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계론적 체계뿐 아니라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라이프니츠의 사상에는 스피노자나 데카르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신학적 사상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종교와 일치하는 결론에 만족했다. 라이프니츠가 추구하는 것은 창조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목적 있는 창조자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상 전체를 관통 하는 핵심이다.

자,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론의 역할은 하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라이프니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실체 개념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체 개념 말입니다.

그는 데카르트가 제시한 물질적 실체, 즉 공간을 차지하는 확장된 물질이라는 관점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물질 개념은 관성과 같은 물질적 물체의 매우 기본적인 속성들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인 운동 상태나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현상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확장성이 기본적인 주요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확장성은 기본 속성이라기보다는 파생적인 속성입니다. 확장된 물질은 더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의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연장성의 속성은 그러한 기본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데모크리토스와 원자론자들이 말했듯이 단순히 연장된 물질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신체는 연장되지 않은 실체들의 복합체입니다.

확장은 합성의 결과이다. 따라서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는 그가 모나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현실의 기본 단위인 모나드는 확장된 물질의 단위라기보다는 힘과 에너지의 단위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스피노자의 실체 개념에 불만을 품고 있다. 스피노자의 결정론에 따르면 자연 전체에는 진정으로 우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필연성 이 있다 .

그리고 우발적이거나 우연적인 사건에 대한 의존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 개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근본 실체는 여전히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를 원초적 물질과 형상으로 분석한 것조차 물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원초적 물질이 관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데카르트의 실체 개념도 관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뉴턴의 물리학을 살펴보면서 물질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에 대한 뉴턴의 개념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현실에 전혀 근거가 없는 순수한 추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했습니다. 1700년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과학과 철학 중 어느 것이 먼저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마치 닭과 달걀의 논쟁과 같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모크리토스가 기계론적 과학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고, 라이프니츠는 그 이후의 과학보다 수백 년 앞서 있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자, 라이프니츠가 우주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간이란 단지 상대적인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공간이 공존의 질서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연속적인 사건들의 질서인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의 관점에서 공간은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 즉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께 볼 때, 사물들 사이의 질서를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조금 뒤, 사실 다음 단락에서 그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균일하다고 말한다. 사물이 놓여 있지 않은 공간에서는 한 지점이 다른 지점과 어떤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시는 것에 얼마나 깊이 관여하시는지 주목해 보세요) 어떤 이유도 가지실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체들의 상태를 서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도, 왜 굳이 그것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공간에 배치하셨는지, 혹은 동쪽을 서쪽으로 바꾸어 모든 것을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배치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공간이 질서와 관계, 또는 물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현재의 상태와 정반대의 상태는 서로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다.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공간은 시간 속에서 사물들의 질서 있는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텅 빈 가능성이다.

시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1년 더 일찍 창조하셨을까?"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추론할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과는 별개의 것이라면 그 추론은 옳을 것입니다.

시공간적인 사건이 없다면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뉴턴의 시공간 개념을 버립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기계론적 과학, 즉 뉴턴 과학에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물질, 힘, 또는 운동. 운동은 힘, 물질, 공간, 시간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공간과 시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단어들은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것은 힘, 즉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는 뉴턴 물리학의 네 가지 핵심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고, 목적론적 체계 안에서 힘이나 에너지에 대한 개념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개입 되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모나드와 모나드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길 원하시나요? 그러시길 바라시는 것 같군요. 채플 박사님?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프니츠를 처음 접할 때 그의 모나드를 그저 과장된 상상력의 산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에 저항하십시오.

이를 일종의 준과학적 가설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질, 입자, 에너지 단위의 본질에 대한 현대적 논의를 예견하는 가설인 셈이죠. 다시 말해, 고체 물질 덩어리와는 구별되는 물질의 에너지적 구성 요소에 대한 가설로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모나드가 힘의 단위이며, 단지 욕구와 지각의 정도에서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합니다. 욕구와 지각의 정도라니. 욕구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스피노자의 카르나투스, 즉 모든 자연 과정, 우리 자신의 신체 에너지와 욕망, 의지, 갈망을 관통하는 듯한 충동, 강렬함, 내면의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아시 겠죠? 언제나 이 육식육, 이 식육, 이 충동이 존재합니다. 마치, 그리고 여기서 저는 목적론적 개념을 언급하는 건데, 마치 어떤 목표를 향해 우리를 끌어당기는 유혹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궁극적 인과관계라는 개념이 개입되는 거죠.

네, 스피노자의 카르나투스는 완전히 효율적 원인, 즉 밀어내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카르나투스도 당겨내는 힘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밀어내는 힘은 아닙니다. 밀어내는 힘과 당겨내는 힘이 모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효율적 원인 과 최종적 원인을 결합합니다. 보시 다시피, 밀고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것이죠. 자연의 모든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식육의 정도 같은 거죠. 그래서 돌맹이가 부수려고 해도 잘 안 부러지는 거고, 식물과 묘목이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신체 과정은 계속 진행됩니다. 등등. 하지만 지각 의 정도 또한 다릅니다 .

자, 지각(apperception)이라는 단어는 명백히 지각(perception)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각, 의식. 자각, 의식, 환경과의 관계성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반응성. 항상 의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식과 유사한 낮은 수준의 반응입니다 . 예를 들어, 지난여름 가뭄 후에 제가 가을에 뿌린 잔디 씨앗이 반응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싹이 트고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중 일부는 아직도 진흙 위로 살아남아 있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따뜻함과 습도에 대한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식육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인간의 식육과 유사한 저단계 감각이 있습니다. 지각 에도 여러 단계가 있고 , 인간의 지각과 유사한 저단계 감각이 있습니다.

존재의 위계질서를 따라 쪽 내려가면서, 그는 이 위계질서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나드를 구분합니다. 가장 아래쪽에는 베어 모나드가 있습니다.

순수한 모나드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영혼 모나드가 됩니다. 또는 생명 모나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영적 모나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최고 모나드가 있죠 . 그런데, 순수한 모나드는 뚜렷한 자각이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지각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무의식 상태의 생명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적인 과정은 계속됩니다. 그가 제시하는 비유는 무의식적인 기계라기보다는 무의식적인 유기체에 더 가깝습니다. 무의식적인 기계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을 가진 유기체는 그 자체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따라서 가장 밑바닥에는 순수한 모나드가 있습니다. 영혼 모나드, 즉 동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모나드 말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생물이 있고, 여기에는 동물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사이의 모든 단계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영혼 단위체에는 일종의 연속적인 의식적 지각이 존재합니다. 일부 고등 동물에게는 기억, 즉 정보를 보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혼 단위체에서 형성된 습관도 있습니다.

사고 와 추론 과정이 있죠 .

자기의식이란 단순히 자극에 대한 감각적 인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성찰합니다. 인간만이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고민하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흔히들 말하듯이, 영적 모나드는 인간 본성의 지배적인 요소, 즉 지배적인 엔텔레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최고 모나드가 있습니다.

신. 최고의 단일체. 완전한 의식 , 즉 전지전능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 .

그리고 그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덧붙이기를, 하나님은 완전한 의식을 지니시고 전지하시며 ,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즉 무한한 욕구, 추진력, 동기 ,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필연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를 본질로 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라이프니츠 역시 존재론적 논증에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양한 종류의 합성체 안에 여러 종류의 모나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합성체 안에서 순수 모나드는 물질적인 사물, 즉 물리적 대상만을 만들어낸다고 해봅시다.

영혼 모나드와 순수 모나드가 결합하여 동물을 만들어냅니다. 정신 모나드가 영혼 모나드 및 순수 모나드와 결합하여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스콜라 철학에서 식물적 영혼, 동물적 영혼, 이성적 영혼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하게, 그 전체 위계질서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존재의 위계론과 기계론적 형이상학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